시 론

주 홍
치유예술가
샌드애니메이션아티스트

오징어 게임의 재미

예술작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지구촌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흠모하게 만들어버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가 해내고 있는 일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뛴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 실현되고 있다. 미국·프랑스·영국 남녀노소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며 즐기고 있다. 영화 '기생충'에 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너무 재미있어서 멈출 수가 없다. 그야말로 거대한 문화의 물결이 되어 지구촌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한국 대중 예술의 힘을 느끼며 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지금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좋아한다. 계단을 내려가거나 여럿이 오랫동안 길을 걸을 때 함께 하면 재미있다. 그런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놀이에서 탈락되면 진짜로 쿨하게 총살하고 화장해버리는 무자비한 설정이다. 초등학교 때 국자를 태운 적이 많았다. 연탄불에 큰 국자를 올려놓고 설탕을 녹이다가 소다를 콕 찍어서 잘 저어 색깔이 갈색에서 카라멜 색으로 바뀌면서 부풀어 오르면 쟁반에 부어서 그릇 바닥으로 꾹 눌러서 뽑기를 만들었고, 별 모양을 떼기가 어려웠다. 엄마가 집을 비울 때마다 국자는 남아나지 않았다. 설탕 타는 냄새와 특유의 단맛은 향수를 자극한다. 너무 재미있었다. 그런데 뽑기 모양을 떼다가 깨지면 죽는 게임이라니! 게다가 함께 놀던 친구의 죽음으로 살아남은 자에게 1인당 1억씩 계산해서 돈을 주는 게임이니, 경마장의 말처럼 달리고 낙오되면 죽는 것이다. 456명이 참가했으니, 마지막 승자에게 456억이 돌아가는 자본주의 게임이다.

영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으면 재미도 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 끔찍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를 너무 솔직하게 밑바닥까지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추악한 욕망과 생존 본능을 건드린다. '이게 좋은 영화야?'라며 보고 있는 동안 내내 불편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솔직한 민낯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솔직함'은 문화적 자신감의 표현이다. 요즘 한국영화, 드라마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군대의 폭력문제 등을 미화시키지 않고 한국 사회 깊숙이 들어와서 고통스럽고 가혹한 일상까지 영화 속에 담아버린다. 솔직하게 인간 삶의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다. 한국드라마에는 욕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읽고 사회에 대한 통찰이 넘치는 명대사들이 문학적으로 살아있다. 섬세한 연기력도 예술, 장면 한 컷 한 컷 카메라의 포착도 예술,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세트장도 예술이다. 기생충도 감탄하며 봤지만, 이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그 단순한 아이들의 놀이에 인간 세상을 담아낸 탁월함과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설정들, 작품성에 감탄했다.

한국 사회는 시끄럽고 역동적이다. 사회의 갈등이 표현되고 민낯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적인 사회라는 반증이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할 수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반지하의 생활과 최상위층의 삶을 보여주며 계층 간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어서 불편했다. 세계 90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는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불편하다.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경쟁시스템과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빈부격차, 다수결 투표의 선택, 종교인의 이면, 폭력, 믿음의 문제 등 부조리한 면을 게임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에 사연이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더 몰입하게 한다. 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아이들의 게임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반추하게 하는 작품이다. 잔혹하고 심각한 내용이지만 리얼리티가 살아있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더 재밌을 것이다. 이 재미는 세계인들이 영화 속 문화를 패러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뽑기 놀이', 양은 도시락, 의상은 물론이고, 사이다에 삶은 달걀까지 유행하고 있다니, 그 재미의 파급효과가 놀랍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징어 게임 봤어요?"하고 묻는다. 마치 인사처럼 말이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소주 몇 병을 비운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키워드는 '재미'다. 놀이공원에 티켓을 사서 아슬아슬한 게임을 즐기듯 우리가 이 게임 같은 세상을 설계하고 선택한다면, 재미 때문일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우리 사회가 서로 지혜를 공유하고 믿음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재미있는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社 說

시급한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가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발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분야는 유독 그 후유증이 크다. 경제상황과 관련된 소식은 여전히 암울하다.

먼저, 광주지역 취업시장의 경우 이미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는 소식이다. 9월 한달간의 광주지역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74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명 감소했고 전월 75만1천명보다도 2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률 또한 58.5%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9월 취업자 수가 2천768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만1천명 증가해 2014년 3월(72만6천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전국 17개 시도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곳은 광주를 비롯해 세종, 제주 단 3곳뿐이며 이 중 광주의 하락 폭이 0.3%포인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고용 상황을 반영하듯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2%(1만3천명)나 증가한 16만6천명이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0%(6천명) 증가에 그쳐 57만1천명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생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작성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8월을 기준으로 소비의 경우 광주는 증가세가 주춤했고 전남은 감소로 전환됐다. 예를 들어 대형소매점 판매가 광주는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했으나 전남은 3.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백화점 판매는 전월(35.8%)보다 증가폭이 둔화됐고 대형마트는 전월(13.8%)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됐다.

삶의 경제지표가 이처럼 온통 빨간불인데, 이를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린다면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코로나19 상황을 일상화하고 방역대책과 함께하는 위드코로나가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책을 안일하게 지켜 볼 일이 아니다.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당장 제시되고 실천돼야 할 때이다.

지방대의 위기 가속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의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가 지방대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졸생들의 인구절벽으로 인해 지방대학 위기는 이미 예견돼 있었지만, 해가 거듭할 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가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총 13조7천5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보다 약 4조3천45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정부 대학지원 증가액 중 약 35%(1조5천227억)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호남권은 같은 기간 약 12.3%(5천364억)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수가 적은 강원·제주권역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또한 경상비를 제외한 대학 1개교당 실질 지원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이 지원을 받았고 가장 낮은 재정지원을 받은 권역도 호남권이었다.

수도권 소재 대학 1개교 당 평균 정부 지원액은 약 275억원인 반면 호남권 소재 대학은 약 185억원으로 90억원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광역시 지역과 비광역시 지역의 차이가 컸다고 한다.

이에 서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난 9년 동안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규모는 확대됐으나 수도권 대학 집중 투자로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무책임한 대학 지원정책을 꼬집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지역대학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이제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이 소멸될 경우 수도권 대학 존립도 위기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광주문화재단 문화융합본부장

메타버스 세상, 그것은 기술 아닌 사람이 중요

참석한 인사들이 '아바타'를 지정해 자리를 잡는다. 주변을 둘러보니 회의장이 녹색으로 단장돼 있다. 딱딱한 느낌이 드는 일반 회의장과는 사뭇 다르다. 상쾌함이 전해진다. 드디어 연단에 발제자가 선다. 자리를 잡고 앉은 청중들은 박수를 보낸다. 크고 경쾌한 박수를 받으며 발제자가 발표를 막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어느 참석자가 연단으로 뛰어든다. 허겁지겁 뛰어 올라와 발제자를 가로막고 선다. 그 뿐 아니다. 저 뒤편에선 플로어에 앉아야 할 청중 몇몇이 앉지 못하고 계속 서성거린다. 알고 보니 메타버스의 기능을 잘 알지 못해 앉으려 해도 자리에 착석할 수 없거나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 행사장을 뛰어다닌 것이다. 당황스러웠지만 약간의 해프닝으로 웃음을 머금게 한 채 포럼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갔다.

지난 주 개최된 2021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정책포럼-'지속가능성에서 메타버스까지'에서 열렸던 제2부 세션 메타버스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개최한 이번 정책포럼에선 메타버스가 시도됐다. 포럼 행사 전체를 메타버스로 진행할 수는 없었다. 포럼에 메타버스를 탑재하면서 몇 가지를 고려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그게 원만하게 가능할까, 관람객들이 적응할까 등이었다. 고민 끝에 한 세션만 메타버스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메타버스를 입혔다. 여기저기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데 그게 뭔지를 체험해 보자라는 차원에서의 도전이었다. 참석한 연사들도 관람객들도 모두 신기해하며 재미있어했다. 가상의 세상에서 사랑, 비즈니스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했던 이들이 메타버스를 실제 체험하며 누군가는 어렵다, 별거 아니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또 누군가는 앞으로 이 세상이 메타버스에서 무궁무진하게 열리며 확장될 거라고 긴장하는 눈치를 보였다.

이제 메타버스가 현실로 다가왔다. 좋든 싫든 메타버스를 타야 하는 세상이 됐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겐 그게 별게 아니다. 세 살짜리 아이도 스마트폰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는 품새가 장인 수준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메타버스 등 디지털 세계는 껄끄럽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세상이다. 늘 가상세계에서 게임하고 사람들을 만나온 그들에게 가상세계는 이미 그들의 현실과 거의 동등했기에 이미 적응돼 있었다. 그들은 감각에 따르면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장년층이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뀐 세상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어떤 이는 말한다. "아니, 난 굳이 배우지 않을래요. 그런 거 알지 않고서도 살지요, 뭐."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자칫 디지털이 주류를 이끌어가게 될 세상에서 비주류로 나앉게 될 판이다. 그게 문제인 것이다. 여하튼 그날 포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은 어떻게든 메타버스를 타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타고 보면 별거 아니라면서. 그리고 빨리 적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날 포럼 말미에선 또 하나의 기술이 선보여졌다. 우리는 기술이 주도하는 세상에 사나보다 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비대면 실시간 네트워크 공연이었다. 세계 4개 도시(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각각 흩어져 있는 예술가(퍼포먼서, 음악, 영상)와 엔지니어, 감독이 실시간으로 소스를 쏘아 올려 공연을 펼쳤다. 시간 차이로 인해서 벌어질 어긋남까지 계산해 영상, 음악, 퍼포먼스를 행한 네트워크 공연이었다. 참으로 멋드러졌다. 엥기엥레벵, 바르셀로나, 부천, 광주에서 함께 쏘아 올린 소스가 한데 엉크러져 멋진 공연으로 버무러졌다. 20분여간 진행된 이 환상적인 어우러짐은 기술이 만들어낸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예술형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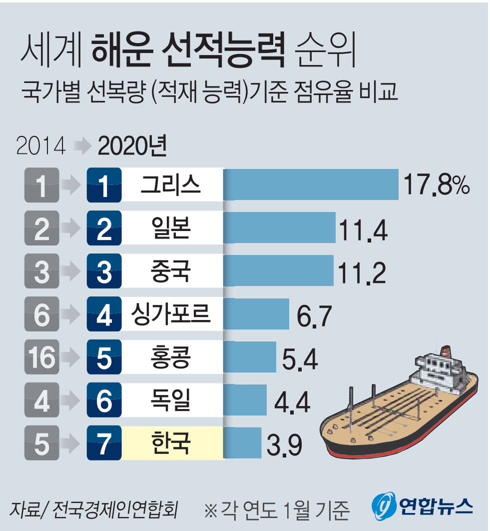
버스는 놓쳐도 메타버스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선거운동 때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메타버스를 통해 얻었다. 메타버스 내에 공간을 마련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로 거기를 꾸며 자신을 어필했다고 한다. 젊은이를 만날 기회가 없는 연로한 바이든이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자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대는 사정없이 변하고 있다. 마치 겉으로는 기술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건 사람이다. 인간이 더 중요한 거다. 활용은 우리에게 달렸다.

그래픽 뉴스

"작년 한국 선적능력 세계 점유율 7위"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선복량(적재 능력) 세계 점유율이 여전히 201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해운산업 국제비교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한국의 지배 선대 선복량은 8천58만3천DWT(순수화물 적재 톤수), 점유율은 3.9%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그리스가 선복량 순위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2014년 1월 기준 점유율 4.7%로 5위를 차지했지만, 한진해운 파산 영향으로 순위가 하락해 2016년에 점유율 4.4%로 7위를 기록했다. 이후 순위는 7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다. 한국 선사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선복량과 노선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운산업은 과거 저가 운임을 내세우는 치킨게임을 벌였고, 한진해운 등 원가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선사들이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그사이 글로벌 대형선사들이 M&A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했고 소수 대형 선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과점화가 발생했다.

최근 물동량 증가로 글로벌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가 이어지고 있고, 세계 2위 선사인 스위스 MSC는 최근 한국 HMM[011200]의 전체 선복량(83만TEU)보다 큰 규모의 컨테이너선 발주(90만TEU)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중국으로 글로벌 선사들이 몰리면서 한국 선대 편성이 축소되는 '한국 패싱' 현상이 심화돼 한국 선사들은 점유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칼럼

최 현 경
광양소방서장

생활 속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 살리자

가을은 언제나 그러하듯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야외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응급처치법'이다.

응급처치와 관련된 국내·외 기념일이 9-10월 기간 중 대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지금 이 시기에는 알고 있던 응급처치법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몰랐던 응급처치법은 새로 익혀두자.

첫 번째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시행해야하는 심폐소생술이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먼저, 쓰러진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과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다. 호흡을 확인 후 호흡이 없다면 주변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하고 즉시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가슴 압박의 위치는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각지를 낀 자세로 시행한다. 압박의 깊이는 5-6cm, 압박 속도는 분당 100-120회로 한다.

다음은 음식물을 먹다가 발생하는 기도 폐쇄 상황에서 '하임리히법'이다.

기도 폐쇄의 증상으로는 환자가 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청색증, 의식저하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성인, 소아의 경우 빠르게 환자 뒤에 발을 벌리고 서서 두 손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앙에 놓고 주먹을 감싸 쥐고 세게 밀어 올린다.

이 행위를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거나 기침을 통해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 실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산행 '안전사고(실족사 및 염좌)' 발생 시 응급처치다. 실족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추락한 환자는 함부로 만지거나 움직이면 상당히 위험하다. 척추나 경추 손상이 의심되면 전신마비, 하반신 마비 등 2차 부상이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환자를 안정시키고 차분히 부상부위를 확인해야한다. 주요 등산로와 산악사고 빈발지역에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구급함이 설치돼 있으므로 활용해 외상 부위를 닦아주는 것이 좋다. 등산로 곳곳에 있는 산악위치표지판 지정번호를 확인해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염좌의 경우는 손수건을 찬물에 적셔 부위를 살짝 마사지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응급처치법들을 사전에 미리 숙지해 적절한 타이밍에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진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TV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